

폐자원 에너지화 경제효과 “1조원”

기획재정부, 원유 대체효과 4346억원 ... 폐기물 처리비용은 5941억원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원유 대체 등을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작업반은 6월25일 열린 <2009-13년 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2017년 경에는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에너지원으로 쓰면 연간 폐기물 처리비용 5941억원을 절감하고 4346억원의 원유 대체효과, 1045억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연성·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소각 여열 회수, 매립가스 회수 등의 시설을 건설·운영함에 따라 일자리도 2016년까지 3만900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처리 서비스라는 2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복합 생산하는 것으로 경제적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종량제봉투의 생활폐기물 중에는 에너지화가 가능한 가연 성분이 83%에 이르고 가연성 폐기물과 고형연료(RDF)화를 통한 폐기물 처리 및 전력생산 비용은 소각처리비용의 55-7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면 가연성 폐기물 가용물량의 46%와 유기성 폐기물의 27%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며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령 정비,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6>